

20대에서 50대까지의 한국인의 자서전에서 언급되는 주체성 및 관계성과 적응변인간의 관계: 성차와 연령차를 중심으로*

Autobiographical Narratives of South Korean Adults from 20s to 50s: Gender and Age Effect in the Relationships among Agency, Communion, and Adjustment

1차원고접수: 2023.01.06. 수정원고접수: 2023.02.21. 최종게재결정: 2023.03.08.

전성주¹ · 장경원² · 김근영³

¹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²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³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Jeon, Sungjoo¹

Jang, Gyeongwon²

Kim, Geunyoung³

¹Dep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국문초록 주체성(agency)과 관계성(communion)은 개인의 자서전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테마이다. 주체성과 관계성에 있어 성차 및 연령차가 발견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차이가 적응변인간의 관련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못하다. 1,786명(남성:51%)의 20대에서 50대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생의 전환점(터닝포인트)에 해당되는 사건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4가지의 적응변인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체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계성을 더 많이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성별과 무관하게 주체성과 관계성 모두를 가지는 것이 적응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차에 있어서는 40대 이상의 중년기는 특히 자서전에서 관계성을 언급하는 참가자일수록 적응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최적의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특히 중년기 이후의 경우 관계성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자서전, 인생의 전환점, 주체성, 관계성, 성인발달

Abstract The concepts of agency and communion have been historically key ingredients in peoples' autobiographical narratives.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agency and communion are well known, but whether these demographic differences are also related to psychological adjustment is an empirical question. Autobiographical stories about turning point episodes were obtained from 1,786 Korean adults(male: 51%) between the ages of 20 and 59. They also completed various mental health questionnaires. Results indicated that although it was generally true that females were more communion-oriented than males, having both agency and communion in their narratives were beneficial to mental health regardless of gender. Concerning age differences, communion rather than agency was important for the adjustment of middle-aged participants. The present findings implied that the optimal adjustment may be developmental-dependent, and communion may need particular atten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well-being of middle-aged people.

Keywords autobiographical memory, turning point episode, agency, communion, adult developmen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정체성은 그가 세상과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각하는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McAdams, 2001). McAdams(2001)는 인간의 성격은 다층(multi-layer)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이 어떤 식으로 사건을 해석

하고 대응했는지에 대한 족적은 화자(話者)의 세상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만들며, 곧 개인의 성격이 된다고 보았다. 이를 탐색하기 위해, 그는 사람들의 자서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을 분석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성격심리학에 기반을 둔 자서전 연구 결과들이 축적이 되면서, 자서전에서 기술된 화자의 특징과 다양한

* 이 논문은 202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22S1A5A2A01045861)

Corresponding to 김근영 (Kim, Geunyoung)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Dep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E-mail. kimg@sogang.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심리적 변인간의 관련성 역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세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은 종종 객관적 사실보다도 적응에 있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서전을 통해 드러난 삶에 대한 해석은 그의 전반적인 적응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간주하여 왔다(Adler et al., 2015; Grossbaum & Bates, 2002; McAdams, 2001).

자서전이란 기본적으로 화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언급한 글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자서전 연구는 대체로 질적 연구 맥락에서 주로 시도되었던 연구 방식이다. 즉, 자서전의 내용을 일반적인 경험적, 양적 연구의 주제로 삼고자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자서전의 특징을 수량화할 수 있는 방식이 고안될 필요가 있었다. 20세기 후반 자서전을 통한 성격연구가 본격적으로 제안되면서, 연구자들은 자서전 자료를 양적연구의 변인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 ‘긍정전환과 부정전환(redemption and contamination; McAdams, Reynolds, Lewis, Patten, & Bowman, 2001)’, ‘일관성(coherence; Adler, Waters, Poh, & Seitz, 2018)’, ‘정서적 해결(emotional resolution; Pals, 2006)’, 그리고 ‘의미부여(meaning making; McLean & Pratt, 2006)’ 등이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 제안된 자서전으로부터 코딩 가능한 경험적 변인들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 중, 관련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오래 전부터 관심을 받았으며,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는 흔히 ‘주체성(agency)’과 ‘관계성(communion)’이라고 명명되는 개념이다. 주체성이란 자서전에서 화자가 얼마나 독립, 유능, 그리고 개인적 성취에 대해 언급하였는지에 대한 정도라고 보통 정의된다. 관계성이란 화자의 자서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타인과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정도라고 정의된다(McAdams, Hoffman, Mansfield, & Day, 1996).

자서전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체성과 관계성은 있다-없다의 두 가지 값 중 하나로 코딩되며, 주체성의 경우 화자가 자서전을 기술하면서 자신의 유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였는지(예, 창업에 성공하여 큰 돈을 벌었다는 스토리), 개인의 성취를

보여주는 이야기(예, 마라톤에 참가하여 완주하였다는 스토리)를 주요한 자서전적 기억으로 보고하였을 때 코딩된다. 관계성의 경우 화자가 타인과의 낭만적인 사랑,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던 행위, 혹은 타인과 깊은 대화 등을 인생의 주요 주제로 언급하였을 때 코딩된다. 물론, 복잡한 자서전에 따라서는 하나의 스토리에서 주체성과 관계성이 동시에 코딩될 수도 있다(예, 자신이 이룩하고자 하는 개인적 성취를 이룩하고, 그것을 통하여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개선이 되었다는 이야기의 경우 주체성과 관계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주체성과 관계성의 개념이 자서전 연구에서 독특하게 도출된 개념은 아니다. 언급하였듯이 최근의 자서전 연구의 뿌리는 성격이론에서 비롯되며, 주체성과 관계성의 개념은 성격심리학에서 이미 1960년대부터 언급되던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이다(Bakan, 1966). 성격심리학자들은 주체성과 관계성이야말로 개인이 자신을 해석할 때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원이라고 보기도 한다(Baumeister & Leary, 1995). 이러한 이유에서 일부 성격학자들은 주체성과 관계성을 ‘자기기술(記述)의 Big Two’라고 주장하기도 한다(Abele & Wojciszke, 2007). 다시 말하면, 주체성과 관계성의 개념은 개인이 자신의 성격을 기술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요소이다. 자서전을 통해 알 수 있는 화자의 ‘세상에 대한 해석’이 결국 그의 성격이라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자서전에는 주체성과 관계성의 특징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자서전 연구들은 자서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심리적 특징이 주체성과 관계성에 있음을 주목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주체성 및 관계성 논문들은 21세기 이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다만 관련 연구들이 주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관계로, 용어는 아직 명확하게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Agency의 경우 연구에 따라서 독자성, 행위주체성, 주도성 등으로 해석되기도 하며(박상준, 2020; 하희수, 김희백, 2019), Communion은 관계성 이외에도 융화성, 친화성, 공존성 등으로 번역되곤 한다(김윤영, 박선웅, 이예은, 주민주, 박유빈, 2016; 전유겸, 임종민, 장문선, 2022). 다만 다른 심리학적 개념

과 오인될 수 있는 용어(예를 들어 ‘주도성’의 명칭은 assertiveness를 말하기도 하며, ‘친화성’이란 agreeableness를 말하기도 한다.)는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 독자성-친화성처럼 마치 두 개념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이 역시도 올바른 번역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단 agency를 ‘주체성’으로, communion을 ‘관계성’으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번역 용어의 혼란은 관련 국내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앞으로 자연스럽게 통일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주체성과 관계성의 개념이 제안된 이후로, 많은 연구들이 이 변인과 다양한 심리적 특징 간의 관련성을 탐구해 왔다. 주체성과 관계성의 정의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방식도 매우 다양한 편이다. 상당수의 연구들은 Big Five와 같은 성격요인 측정 설문지 중 주체성이나 관계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문항들을 사용하곤 한다. 또 성역할 설문지나 도덕 판단 설문지, 혹은 암묵검사와 같은 실험적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자면, 주체성은 주도성(assertiveness; Horwitz & White, 1987)이나 외향성(extraversion; Abele et al., 2016)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반면 관계성의 경우 친밀감(intimacy; McAdams et al., 1996)이나 우호성(agreeableness; Abele et al., 2016)과의 상관관계가 보고되는 편이다.

그런데 다소 의외인 점은, 이 변인들과 일반적인 적응지표간의 관련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다. 비록 많은 연구들이 주체성/관계성과 적응변인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Adler et al., 2015; Buchanan & Bardi, 2015; Grossbaum & Bates, 2002), 대체로 그 상관관계의 강도는 높은 편이 아니며 약 $r = .10$ 에서 $.2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높지 않은 상관관계는 경험적 연구에 따라 비일관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Adler와 동료들(Adler et al., 2015)의 장기종단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고된 변인은 주체성이었으며, 관계성은 큰 관련성이 없었다. 반면 Diehl, Own과 Younblade의

연구(2004)에 따르면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성이 발견된 변인은 관계성이었으며, 오히려 주체성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주체성 및 관계성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Whitley, 1985), 최소한 서양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의 경우 주체성과 적응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상관관계의 강도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치 역시 일관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자서전 연구를 통해 주체성과 관계성이 코딩된 경우에는 더욱 눈에 띄고 있다.

이렇듯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 강도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서전 연구의 기본 전제 중 하나가 화자의 자서전은 개인의 안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며, 또 주체성과 관계성이야말로 자서전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서전에서 드러나는 주체성과 관계성 및 적응 간의 관계는 단순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며, 수많은 다른 관련 변인들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주체성과 관계성의 다양성을 만드는 요인들

1) 성차

주체성/관계성 및 적응 간의 관련성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연구자들은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조절변인이나 매개변인들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이 중 특히 세 가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주목하였다. 그 변인들은 첫째, 화자의 성(性), 둘째, 화자의 연령, 그리고 셋째, 화자가 살고 있는 문화의 영향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주체성과 관계성에서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주체성과 관계성의 개념이 처음 제안되었을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된바 있는 잘 알려진 주장이다. 개인사의 언급에 있어 남녀간 성차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아예 주체성을 ‘남성성(masculinity)’ 그리고 관계성을 ‘여성성(femininity)’이라고 바꿔 부르기도 하였다(Helgeson, 1984). 경험적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발견되는

데, 심지어 일부 연구에 따라서는 주체성과 관계성을 측정하기 위해 Bem Sex Role Inventory와 같은 성역할 설문지를 이용하기도 한다(Kuiper & Borowicz-Sibenik, 2005; Locke & Nekich, 2000). 1970년대부터 보고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자면,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주체성과 관련된 주제, 예를 들어 개인의 성취나 능력, 자립을 더 많이 언급하는 편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애착이나 대인 관계와 관련된 언급이 더 많다(Helgeson & Palladino, 2012; Korlat et al., 2022).

이렇듯 자서전적 보고에서 주체성과 관계성의 성차가 보고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차가 적응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사실상 잘 알려져 있지 못하다. 성역할과 관련된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너무 고정관념적인 여성 혹은 남성 성역할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적응에 있어 좋지 않은 결과를 예측한다(Bem & Lewis, 1975). 극단적인 남성성 혹은 여성성에 대한 집착을 흔히 경직된 주체성(unmitigated agency) 혹은 경직된 관계성(unmitigated communion)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이나 관계성은 적응과는 부적인 관계를 가진다(Bruch, 2002; Helgeson & Palladino, 2012). 그렇다면 반대로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특징을 자서전에서 많이 언급했던 개인의 적응이 더 좋은가? 이에 대한 대답 역시 불분명한데, 아직 자서전 연구에서는 경직된 주체성이나 경직된 관계성을 구분하는 방식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자서전에서 발견되는 주체성과 관계성의 언급에 있어서의 성차가 어떤 식으로 적응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성과 관계성에 있어서 성차가 보고되는 것 자체는 명백하기 때문에, 자서전의 분석에 있어 성차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령차

두 번째 요소로, 성차에 비해 연구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래도 많이 알려진 인구통계학적 고려사항은 화자의 연령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개인사에 대한 언급에 있어 고연령대의 화자일수록 관계성에 대한 기술이 많고, 반면 젊은 성인일수록 주체성에 대한 언급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Diehl과 동료들의 연구(2004)에 따르면, 노년층에 비해 초기 성인기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는 요구에 주체성과 관련된 주제를 더 많이 언급하였다. 이와 비슷한 패턴이 Walker와 Frimer의 연구(2015)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성차에서의 이슈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른 일반적인 차이가 개인의 적응과 무슨 관련성을 보이는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였을 때, 주체성이나 관계성은 두 가지 모두 개인의 적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연령과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주체성과 관계성은 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자를 포함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높은 수준의 주체성과 관계성은 20대 학부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Saragovi, Koestner, Di Dio, & Aubé, 1997), 중년기 성인의 생생감(Ackerman, Zuroff, & Moskowitz, 2000), 그리고 노년기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자기개념유지에 모두 정적인 관련성을 보인다(Hedman, Hansebo, Ternstedt, Hellström, & Norberg, 2016).

그에 반해, 일부 고전 발달심리학적 이론을 적용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체성에서 관계성으로 관심 주제가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예상할만한 논리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에릭슨(Erikson)의 사회문화발달이론(Erikson, 1982)이나 레빈슨(Levinson)의 성인기 계절이론(Levinson, Darrow, Klein, Levinson, & McKee, 1978)에 따르면, 성인초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은 일반적으로 주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중년기로 갈수록 관계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이론들의 논리에 따르면, 관계성이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특히 중년기 이후가 되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자서전 연구에서 명백히 다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결론은 아직 매우 잠정적이다.

3) 문화차

마지막으로, 그동안 경험적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문화심리학자들에 의해 언급되기 시작한 주제는 문화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주체성의 개념은 특히 서양인의 사고방식과 더 좋은 궁합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즉,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들이 대체로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체성과 적응 간의 상관관계가 관계성과 적응 간의 상관관계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Fung et al., 2016). 반면 동양 문화권의 경우 서양에 비해 관계성과 관련된 요소, 예를 들어 대인관계의 유연성 등을 더 강조하는 편인데 (Markus & Kitayama, 1991), 이 경우 오히려 관계성이 적응을 더 잘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기능할지도 모른다. 요약하자면, 주체성/관계성과 적응 간의 관련성 역시 문화특수적 개념이며, 따라서 문화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소위 ‘문화특수성 가설’은 아직 온전히 지지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몇몇 교차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가치에 대한 문화적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 편이었다(Vilar, Liu, & Gouveia, 2020). 캐나다와 중국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Fung et al., 2016), 두 문화권의 집단 모두 노년층이 젊은 층에 비해 관계성에 대해 더 많이 언급을 하는 것이 공통적이었으며, 캐나다나 중국이나 관계성과 적응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주체성과 관계성의 문화특수성 가설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아직 경험적인 지지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한 교차문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특수성가설에 대한 직접적인 가설검증은 할 수가 없다. 다만 대부분의 자서전 및 주체성/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서양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비서양 문화권에서의 자서전 자료는 동서양의 적절한 비교를 위해서도 축적될 필요가 있음은 명백하다. 한국에서의 광범위한 자서전 자료는 아직 제대로 수집이 된 적이 없기에, 본 연구는 다수의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급적 많은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이는 추후의 교차문화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연구 목적 및 가설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주체성과 관계성은 자서전 분석에 있어 핵심요소로, 적응 간의 관련성을 탐구하는데도 중요 변인으로 간주하여 왔다. 성과 연령은 주체성과 관계성의 다양성을 만드는 대표적인 인구통계학적 개념이었으나, 성차나 연령차가 적응 간의 관련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경험적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는 주체성과 관계성에서 발견되는 성차 및 연령차가 개인의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의 부재로 인해 명확한 구체적 가설의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렵지만, 일단은 성차 및 연령차에 의해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이 달라진다고 가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즉, 남성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어릴수록 자서전에서 주체성을 언급할수록 적응과 관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대되는 패턴, 즉 여성이거나 연령이 높은 집단의 경우 주체성보다는 관계성에 대한 언급이 적응과 더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보조적인 목표로, 문화특수성 가설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한국인의 경우 서양인들의 일반적인 보고와는 다르게 관계성과 적응 간의 상관관계가 주체성과 적응 간의 상관관계보다 높은 수준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본 자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자서전적 기억을 통해 주체성과 관계성을 연구한 국내 첫 보고라는 점도 염두에 두었다. 국내에서도 종종 자서전 연구는 발표된 바 있으나, 대부분은 질적 연구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조봉환, 박미진, 김진희, 2014; 조선희, 2008), 혹은 한정된 연령대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종이었다(김근영, 2013; 양재원, 양은주, 김근영, 2012). 따라서 가능한 많은 연령대의 연구 대상자를 확보하여 관련 연구를 위한 충실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20세와 59세 사이의 한국 성인 총 1,8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서전 연구의 경우 어느 정도의 인생 경험이 필요하기에, 경험 자체가 적고 대체로 경험 동질성이 높은 10대의 경우 많이 포함하지는 않는다(예, 10대의 행동반경은 누구나 학교나 가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자서전과 같은 심층자료를 광범위하게 모으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20대 이후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자료수집 종료 시점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참가자의 연령이 59세였다. 따라서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로 본 연구를 규정하였다.

연구참가자는 온라인으로 모집되었으며, 온라인으로 구성된 자서전과 척도들에 응답하였다. 전체의 34% ($n = 613$)는 20대였으며, 30대부터 50대까지는 400명씩 균등 배분하였다. 거주 지역의 지역적 균형을 반영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한국인의 분포에 맞도록 모집되었다. 51% ($n=925$)의 참가자는 남성이었으며, 956명(52.7%)은 기혼상태였다. 참가자의 90%는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고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약 300만 원 이상의 월수입이 있다고 답하였다. 자료 수집 당시의 근로자 평균임금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참가자들의 경우 한국 평균 수준보다는 약간 상위의 계층이 주로 모집되었다고 판단된다.

최초로 수집된 참가자 중, 27명의 자료는 불성실한 답변, 혹은 믿을 수 없는 답변을 보고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두 명의 코더가 자료를 코딩하였으며, 코더 두 명 모두 자서전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의견을 밝힌 경우 그 자서전의 값은 포함하지 않았다(예, 한 참여자의 경우 자신이 10여 년 전 주식투자자로 약 1조 원대의 자산을 축적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그 이후 자서전 진술에서는 일관성 없는 기술을 하였다.). 최종 분석은 1,786명의 자서전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2. 측정

1) 자서전 기술

자서전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은 20세기 후반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참가자에게 자신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사건 하나를 특정하여 그 사건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예, 인생 최고의 사건, 인생 최악의 사건, 인생의 전환점, 기억하고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의 사건 등). 이 중 경험적 연구에서 많이 탐구하는 인생사의 시점은 ‘인생의 최하점(The lowest point)’과 ‘인생의 전환점(The turning point)’의 두 가지 지점인데, 특히 전환점의 경우 20-30대의 젊은 성인을 포함하는 자료의 경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McLean & Pratt, 2006). 따라서 본 연구도 인생의 전환점(터닝 포인트)을 자서전 보고 지점으로 삼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선행 연구 및 자서전 코딩 매뉴얼에 기반하여(McAdams, 1997; McAdams et al., 1996; McLean & Pratt, 2006), 참가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터닝 포인트)에 해당하는 단일 사건이 무엇인지를 가급적 자세히 기술하도록 요청되었다. 자서전 내용은 온라인으로 제시된 지시문 아래에 자유롭게 기입하면 되나, 특히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느꼈고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너무 짧은 글을 기입하였는지, 혹은 연속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기입하는 경우 온라인 서버에서 감지하여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2) 자아존중감

종속변인으로 총 4가지의 적응관련 변인을 측정하였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한국판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s Self-Esteem Scale, Rosenberg, 1965)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척도 중 하나로, 총 10문항의 4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는 .81이었다.

3)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을 위해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척도(COMOSWB;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삶의 만족도를 묻는 3문항과 긍정적 정서 경험에 관한 3문항, 그리고 부정적 정서 경험을 측정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Likert방식의 7점 척도이며, 삶의 만족도 점수와 긍정 정서 값의 합에 부정 정서 값을 감산하여 전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각 하위 요인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는 삶의 만족도가 .87, 긍정 정서가 .89, 그리고 부정 정서가 .85 수준이었다.

4) 우울감

우울감은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1992)에 의해 타당화된 한국형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의 우울감 측정을 위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척도이며, Cronbach's alpha값은 .92로 높은 편이었다.

5) 불안감

불안감의 측정을 위해 이용승(2000)에 의해 타당화된 B-MAS(Bendig Short Form of the Manifest Anxiety Scale)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의 불안감 측정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20문항 척도이다.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는 .89였다.

3. 자서전 코딩

자서전 코딩은 두 명의 코더가 진행하였다. 코더들은 연구의 가설 및 연구대상자의 기초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료 코딩을 하였으며, 모든 자료를 같이 코딩하였다.

코딩 방식은 기존 연구 및 코딩 매뉴얼(Adler et al., 2015; McAdams et al., 1996)에 근거하여 총 8개의 테마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코딩되었다. 주체성에서 총 4개의 테마가 코딩되었으며, 관계성에서 4개의 테마가 코딩되었다. 이 방식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관련연구를 수행했던 McAdams(1980, 2001)의 일련의 연구들에 기반하며, 그가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하여 제안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코딩기준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그의 대부분의 연구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한국인만의 독특한 자서전 테마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관계로 일단 본 연구는 McAdams의 제안에 근거하여 자료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1) 주체성 코딩

주체성 코딩은 ① 자기숙달, ② 지위와 승리, ③ 성취, 그리고 ④ 역량향상의 4가지 테마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 언급하자면, 첫째, 자기숙달(SELF-MASTERY)이란 자신의 인생의 의미로부터 극적인 통찰을 얻게 되어 이를 통해 보다 강한 자아를 얻게 되었다는 서술이 있을 때 코딩된다. 예를 들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이 발휘될 수 없다고 느낀 후, 퇴사하여 새로운 스타트업 사업을 시작하였던 순간을 자신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보고한 경우,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통해 자신이 보다 강한 성취감 및 세상에 대한 통제감을 획득했다고 언급한 경우에 자기숙달 테마가 있었다고 코딩되었다.

둘째, 지위와 승리(STATUS/VICTORY)란 타인과의 경쟁과 성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 타인의 존경이나 관심을 경험했을 때 코딩된다. 이 경우는 특히 시험에서 타인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경우, 혹은 운동 경기에서

높은 순위에 오른 경우에 많이 코딩된다.

셋째, 성취(ACHIEVEMENT/RESPONSIBILITY)란 특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부심 및 자신감을 획득하였을 때 코딩된다. 앞의 지위와 승리의 경우 ‘타인과의 경쟁’이 핵심 요소인 반면, 성취의 경우 ‘자신의 목표’가 핵심요소이다. 같은 맥락에 처한 경우라도(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상황), 그 경험을 통해 타인과의 비교가 강조된다면 ‘지위와 승리’가 코딩되며 ‘자신의 자부심’이 강조되면 성취가 코딩될 수 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언급될 경우 지위와 승리, 그리고 성취 모두 코딩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역량향상(EMPOWERMENT)이란 자신보다 더 우월하거나 힘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이 더욱 강해졌다는 기술이 발견될 때 코딩된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란 꼭 인간일 필요는 없으며, 예를 들어 ‘대자연’이나 ‘신’과의 조우 등을 통해 얻은 통찰도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체라기보다는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신의 역량의 향상’이 얼마나 강조되느냐에 있다(만약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체를 강조한다면 뒤이어 설명할 관계성의 테마로 코딩될 가능성이 높다).

평정은 자서전에서 위의 4가지 테마에 해당하는 내용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 유무를 판단하여 1(기술 있음) 혹은 0(기술 없음)으로 코딩되었다. 네 가지 주제 모두 각각 코딩되며, 따라서 하나의 자서전 기술에서는 최대 4점까지의 주제성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코딩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위의 4가지 테마 중 하나 이상이 명명백백하게 기술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2) 관계성 코딩

주체성이 ‘타인으로부터의 이탈’ 혹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얻게 되는 개인의 우수함에 대한 통찰이라면, 관계성은 ‘타인을 통해 얻게 되는 통찰’, 즉, 타인과의 관계 및 통합을 언급하였을 때 코딩된다. 역시 주체성과 마찬가지로 총 4가지 영역에서 유/무가 평정되며, 4개 하위영역의 합에 따라 총점 4점 만점으로 계산된

다. 각 주제는 사랑과 우정, 대화, 돌봄과 지원, 그리고 통합 및 일체감으로 명명되었다.

첫째, 사랑과 우정(LF: LOVE-FRIENDSHIP)이란 화자가 타인과의 성적인 사랑, 혹은 강한 우정 감정을 경험하고 이를 언급하였을 때 코딩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자신의 애인에게 고백한 장면이라고 언급하며, 그것을 통해 얻게 된 애인과의 강력한 정서적 친밀감 등이 자세히 보고되었을 때 코딩된다.

둘째, 대화(DG: DIALOGUE)란 참가자가 타인, 혹은 타인으로 이루어진 그룹과 상호적이고 비지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한 것을 기술하였을 때 코딩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 전환점으로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담임 선생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자세히 언급하고, 그 대화를 통해 얻은 통찰로 인해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기술된 자서전의 경우 ‘대화’가 코딩된다. 대화의 상대는 대체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꼭 자신과 깊은 관계를 나누는 상대일 필요는 없으며, 어떠한 관계였던지간에 그 사람과의 대화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는 기술이 존재한다면 코딩될 수 있다.

셋째, 돌봄과 지원(CH: CARING-HELP)이란 타인에게 보살핌, 도움, 지지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 타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더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을 때 코딩된다. 가장 흔히 나오는 맥락이 ‘양육’맥락인데, 아이를 양육하면서 특별히 중요했던 특정 양육 경험(예, 아이가 매우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었던 경험)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그 아이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종류의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 및 일체감(UT: UNITY-TOGETHERNESS)이란 특정 경험을 통해 어느 집단, 공동체, 혹은 인류에 대한 하나 됨, 혹은 동료애 등을 느꼈다고 기술할 때 코딩된다. 다른 관계성의 주제는 ‘특정한 타인’이지만 통합 및 일체감의 경우 구체적인 타인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타인’이 상호작용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반 운동경기의 경험을 통해 우리 반 모두 동일한 동료애를

경험했다든지, 군대의 같은 부대에서 느끼는 소속감, 혹은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합심하여 시위를 하면서 느끼는 일체감 등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세상’과의 연결감이 언급될 때 통합 및 일체감이 코딩된다.

주체성과 마찬가지로, 관계성의 경우에도 4가지의 테마를 독립적으로 코딩하며, 각 테마가 자서전에서 명백히 제시될 경우에만 1점(기술 있음)을, 그렇지 못할 경우는 0점(기술 없음)이 코딩되었다.

전체 주체성 및 관계성 값은 각 4가지 테마의 코딩치의 합산 값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총점으로 보았을 때 주체성은 최대 4점까지가 부여되며, 관계성 역시 4점까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서전 코딩 자체가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의 자서전에 모든 테마가 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도 하나의 자서전 스토리에서 3점 이상이 코딩되는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본 연구에 있어서도 2점 이상 나온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코딩 결과 과반수의 자서전의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테마 중 어느 것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코딩되었다. 주체성의 경우 57%의 참가자가 0점을 부여받았으며, 650명(36.4%)에 해당하는 참가자가 1점을 부여받았다. 2점 이상 부여받은 참가자는 7%에 해당하는 126명밖에 되지 않았다. 관계성의 경우 자료의 편차는 더욱 두드러졌는데, 88%에 해당하는 1,604명의 자료에서는 어떠한 관계성의 증거도 발견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주체성 및 관계성의 분포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며(Mackinnon, Sherry, & Pratt, 2013), 이는 언급하였듯이 자서전 코딩의 기본 접근 자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만 코딩한다’라는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기에 그러하다.

대학원생 2명의 코더가 모든 자서전을 코딩하였으며,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카파 신뢰도는 ‘만족할만한 수준(Landis & Koch, 1977)’으로 평정되었는데, 주체성은 $k=.76$, 그리고 관계성은 $k=.72$ 수준이었다. 코더들간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먼저 재코딩을 통해 점수를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차 코딩시 불일치한 자료의 약 60%는 재코딩을 통해 새로운 점수가 배분되었다. 재코딩시에도 점수가 불일치 할 경우, 두 코더의 값 중 더 낮은 점수를 최종 점수로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자료들이 0점 아니면 1점이기 때문에, 코더간 불일치 판정을 받은 자료들의 경우 모두 0점으로 코딩되었다(이 절차 역시 다수의 참가자가 0점으로 코딩되도록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최종 코딩결과, 대부분의 주체성 및 관계성 값들은 0점이나 1점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상관분석과 함께 주체성이나 관계성의 유/무를 독립변인의 수준으로 삼아 변량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즉, 자서전에서 주체성이나 관계성을 언급했던 집단과 그렇지 않았던 집단간의 적응지표 값의 평균차이를 비교하는 분석방식을 취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변인 간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성, 그리고 연령에 따른 주체성과 관계성을 언급한 참가자의 분포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주체성과 관계성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r = -.04$), 이는 두 변인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도 아니며, 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도 않은 독립적인 개념임을 시사하였다. 모든 적응변인들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설에서 예상한 방향으로 주체성 및 관계성과도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다만 상관관계의 강도는 약한 수준을 보였는데, 기존 연구들에서도 상관관계의 크기 자체는 크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주체성과 적응변인간의 상관관계는 관계성과 적응변인간의 상관관계보다는 강한 편으로 보였다. 그러나 Fisher's r to z 변환으로 분석결과 두 상관관계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All $ps > .05$). 즉, 주체성과 적응 간의 관

련성이나 관계성과 적응 간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성차에 있어서는 예상한 대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서전 스토리에서 관계성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였다($\chi^2_{(1)} = 9.76, p < .01$). 그러나 주체성에 있어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chi^2_{(1)} = 2.65, p = .10$). 연령차에 있어서는 성차와는 반대되는 패턴이 발견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주체성이 연령차가 발견되는 유의미한 맥락이었다($\chi^2_{(3)} = 59.39, p < .001$). 반면 관계성에 있어서는 연령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chi^2_{(3)} = 2.283, p = .52$).

전반적으로 요약하자면, 많은 선행연구들이 자서전 보고에 있어서 성차 및 연령차를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 일부에서만 이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주체성과 관계성이 자서전을 통해 유/무의 이분변인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에 일부 기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반면 자서전 연구가 아닌 선행연구들의 경우 대체로 주체성과 관계성을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비해 주체성과 관계성의 변산도가 작은 편이었다.

2.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성과 관계성의 효과

주체성과 관계성의 유무에 따라 적응지표 간의 차이가 발견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독립변인은 주체성 여부(2: 유/무), 관계성 여부(2: 유/무), 연령집단(4: 20, 30, 40, 50대), 그리고 성(2: 남성/여성)의 총 4가지였으며,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우울, 불안의 총 4가지 적응지표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2X2X4X2 중다변량분석 결과, 관계성($F_{4,1750} = 4.50, \eta^2 = .01, p < .001$) 및 연령집단($F_{12,5256} = 3.49, \eta^2 = .01, p < .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 주체성의 주효과는 경계선적인 수치를 보였다($F_{4,1750} = 2.248, \eta^2 = .01, p = .062$).

각 종속변인들에 미치는 효과를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추가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체성의 경우 자서전에서 주체성을 언급한 참가자는 그렇지 않은 참가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F_{1,1753} = 6.45, \eta^2 = .01, p < .05$), 낮은 수준의 우울($F_{1,1753} = 4.11, \eta^2 = .02, p < .05$), 그리고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을 보였다($F_{1,1753} = 7.64, \eta^2 = .02, p < .01$). 관계성의 주효과는

표 1.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1	2	3	4	5	6	<i>M(SD)</i>
1. 주체성	--						.51(.64)
2. 관계성	-.04	--					.11(.30)
3. 자아존중감	.14**	.07**	--				2.90(.46)
4. 주관적안녕감	.12**	.08**	.66**	--			16.05(8.38)
5. 우울	-.11**	-.05*	-.63**	-.67**	--		1.83(.43)
6. 불안	-.10**	-.08**	-.62**	-.61**	.69**	--	.37(.27)

* $p < .05$. ** $p < .01$.

표 2. 주체성과 관계성을 언급한 참가자 분포

	주체성		관계성	
	Yes	No	Yes	No
여성	397(380)	477(494)	108(88)	766(786)
남성	379(396)	532(515)	73(92)	838(819)
20대	327(262)	276(341)	60(61)	543(542)
30대	180(172)	215(223)	40(40)	355(355)
40대	147(173)	250(224)	34(40)	363(357)
50대	122(170)	268(220)	46(39)	344(351)

Note: 괄호안의 수치는 기대값(expected numbers)임

모든 종속변인에 있어 유의미하였는데, 자서전에서 관계성을 언급한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F_{1,1753} = 7.87, \eta^2 = .01, p < .01$),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F_{1,1753} = 15.79, \eta^2 = .01, p < .001$), 낮은 수준의 우울($F_{1,1753} = 5.42, \eta^2 = .01, p < .05$) 및 낮은 수준의 불안($F_{1,1753} = 10.18, \eta^2 = .01, p < .001$)을 보였다.

중다변량분석을 통한 전체검증(omnibus test)에서는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변량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F_{3,1777} = 5.28, \eta^2 = .01, p < .001$)과 주관적 안녕감($F_{3,1777} = 5.37, \eta^2 = .01, p < .001$)에 있어서는 연령과 관계성에 따른 주목할 만한 2원 상호작용 패턴이 있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자서전에서 관계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낮은 수준의 자존감과 관련이 되었다. 반면 관계성의 언급은 특히 중년기 이후의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과 큰 관련이 있었다. 유사한 패턴이 주관적 안녕감에서도 드러났는데, 그림 2에 의하면 관계성의 보고는 특히 중년 이후의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되었으며, 반면 20대의 경우 관계성을 언급하는 것이 적응을 예측해 주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호작용 패턴은 성차나 주체성의 맥락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관계성이 특히 중년기 이후의 적응과 관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연령 및 성차에 따른 주체성/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연령 및 성차에 주요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주체성/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상관관계 역시 연령별, 그리고 성별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표 3 참조).

먼저 성별에 있어서, 주체성/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는 딱히 성별에 따라 뚜렷이 다른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서전에서 관계성을 더 언급한 편이긴 하지만, 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강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체성 역시 적응변인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남녀 간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All\ ps > .05$).

성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 간의 상관관계 패턴이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연령에 있어서는 특히 관계성의 맥락에 있어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3에 드러난 바와 같이, 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20대와 30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인 데 반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그 강도가 강해졌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본 연구에서 측정한 가장 어린 연령대인 20대와 가장 나이가 많은 연령대인 50대 집단 간의 비교에서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났다. 20대의 경우 관계성은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어떠한 적응변인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50대의 경우 관계성은 모든 적응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예를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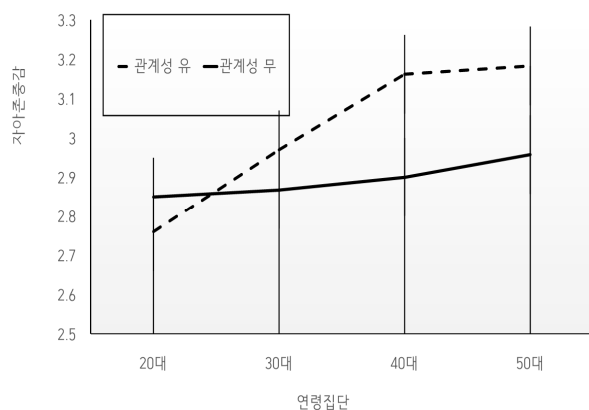


그림 1. 연령과 관계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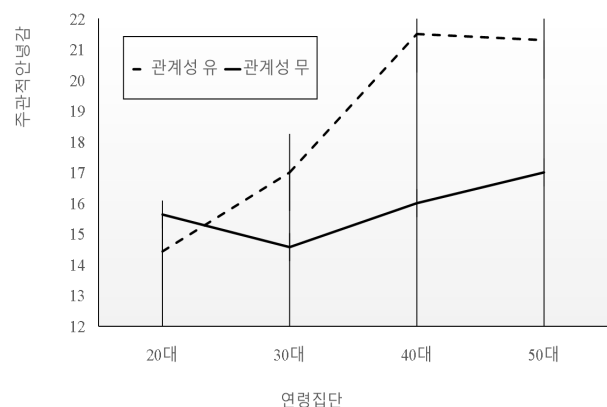


그림 2. 연령과 관계성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표 3. 성 및 연령에 따른 주체성/관계성과 적응변인간의 상관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우울	불안
여성	주체성	.16**	.14**	-.13**	-.12**
	관계성	.09**	.11**	-.08*	-.07*
남성	주체성	.12**	.11**	-.09**	-.08*
	관계성	.05	.08*	-.04	-.10**
20대	주체성	.19**	.17**	-.14**	-.15**
	관계성	-.06 ^{ab}	-.05 ^{abc}	.03 ^{ab}	.01 ^{ab}
30대	주체성	.19**	.18**	-.15**	-.11*
	관계성	.06	.09 ^a	-.06	-.11*
40대	주체성	.10*	.10*	-.17**	-.19**
	관계성	.16** ^a	.18** ^b	-.12* ^a	-.12* ^a
50대	주체성	.11*	.09	-.10	-.05
	관계성	.17** ^b	.17** ^c	-.11* ^b	-.13* ^b

주. 같은 알파벳 윗첨자는 상관관계의 강도가 서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의미임($p < .05$).

* $p < .05$. ** $p < .01$.

어 20대의 경우 관계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r = -.06$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40대에서는 $r = .16$, 그리고 50대에서는 $r = .17$ 로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주체성의 경우에는 반대되는 패턴을 보였는데, 주체성은 오히려 20대의 모든 적응지표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50대 집단에서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Fisher변환검사를 통해 상관관계 강도의 값을 비교한 결과, 20대 집단의 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40대 및 50대의 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상관관계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All $ps < .05$).

결론적으로, 비록 젊은 성인이나 중년기 성인이나 자서전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관계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관계성의 언급이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관계성은 성인 초기에 비해 중년기 성인의 적응을 예측하는데 더 유용한 변인임을 시사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함의

자서전에 있어 주체성과 관계성은 가장 많이 보고되

는 주제인 동시에, 개인의 적응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요소라고 알려져 왔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주체성과 관계성의 언급에 있어 특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은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였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관계성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Helgeson & Palladino, 2012; Korlat et al., 2022),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서전에 관계성의 내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Diehl et al., 2004; Fung et al., 2016). 주체성과 관계성에 있어서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관련 연구 맥락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던 사실이지만, 이러한 인구학적 차이가 주체성/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미지수였다. 특히 자서전 연구 맥락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더욱 불확실하였는데, 자서전 코딩 방식이 확립되고 일반화된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최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따라서 주체성, 관계성, 그리고 적응변인 간의 관계가 성과 연령이라는 인구학적 변수에 의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다.

전반적인 결과를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 의하면 기존 연구들에서 발견된 경향성과 예측은 일부 지지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초분석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자서전에서 관계성에 대해 더 많이 언급했으며, 젊은 성인일수록 주체성에 대해 많이 언급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흡사하다. 그러

나 주체성의 성차, 그리고 관계성의 연령차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못하였다. 결과 부분에서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취한 엄격한 코딩 방식에서 일부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평정자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체성과 관계성의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였으며, 가능한 보수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코딩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대체로 주체성과 관계성을 척도화된 자기보고식 검사지를 통해 측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자서전의 내용을 통해 유/무의 이분변인 방식으로 코딩하였기에 이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산도 및 상관관계에 기여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된다.

주체성/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패턴은 연령대에 따른 관계성과 적응 간의 관련성에서 발견되었다. 20대나 30대의 젊은 성인층에 비해, 자서전에서 관계성을 언급한 40대 이상의 참가자들의 경우 적응에 있어 일종의 ‘부스터 효과’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고전적인 성인 발달 이론, 예를 들어 Erikson의 사회문화적 발달이론을 토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Erikson(1982)에 따르면, 개인의 발달단계가 중년기로 이행되면서 그들의 발달과업도 자기중심적인 테마(예. 자아정체감 형성)에서 타인중심적인 테마(예. 친밀감 형성이나 생산성의 강화)로 바뀔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관계성과 적응 간의 관련성은 개인의 효과적인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발달단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히 세상에 대한 접근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함을 함의한다. 경험적 연구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사회적 지지의 경우 특히 노년층의 심리적 건강 및 생존율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이승영, 최지영, 2021; Cacioppo, & Hawkley, 2003).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보고한 주체성과 관계성의 효과 크기에 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Whitley(1985)의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관계성과 적응 간의 관련성은 일반적으로 주체성과 적응 간의 관련성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경우 대체로 연구대상자가 젊은 성인, 특히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만약 본 연구의 결과처럼 관계성이 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중년기나 되고부터 두드러진다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존 연구들에서 관계성에 비해 주체성의 효과가 더 강하게 발견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하는 예로, 관계성과 적응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된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중년기 이후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한 경우가 많다(Ackerman et al., 2000; Grossbaum, & Bates, 2002; Matud, Bethencourth, Ibáñez, & Forteset, 2020).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주체성이 관계성에 비해 모든 맥락에서 적응을 더 잘 예측해주는 변인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연령의 조절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추후 연구에 있어서의 전략적 제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만약 연령이 주체성과 관계성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특히 중요한 변인이라면, 추후 연구들은 연령 변인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표 3에서 드러난 20대와 50대의 반응패턴을 보면 만약 본 연구에서 50대 이상을 표집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지 특히 명확하게 드러난다. 현재까지의 많은 주체성과 관계성 연구들이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곤 했으나, 그중에서도 핵심적으로 더 많이 언급된 변인은 사실상 성차였으며, 연령차는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주체성과 관계성의 역할에 있어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쩌면 성차라기보다는 연령차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차에 있어서는 특별히 여성이나 남성이나에 따른 주체성/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관련성의 패턴은 두드러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성별과 무관하게 자서전에서 주체성, 그리고 관계성이 제대로 언급된 참가자들의 적응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다. 주체성과 관계성이 처음 제안될 때부터 이 두 변인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었으며, 두 변인 모두 긍정적인 개념으로 소개된 바 있다(Bakan, 1966).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두 변인 간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일반적

으로 주체성을 흔히 남성성이라고도 하고 관계성을 여성성이라고 하듯이 남녀에 따라 두 요소의 보고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주체성과 관계성 모두를 가지는 것은 적응에 있어 분명 유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성역할 발달에 대한 고전적인 양성성 이론(Bem & Lewis, 1975)과도 일맥상통한다.

마지막으로 문화가설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뚜렷한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인, 즉 흔히 집단주의적 문화권의 사람이라고 해서 딱히 관계성과 적응 간의 상관관계가 주체성과 적응 간의 상관관계보다 더 높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엄밀한 교차문화 연구라고는 할 수 없으며 한국인의 자료와 서양인의 자료를 직접 비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문화특수성가설을 부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서양의 자료와 한국의 자료를 직접 비교하는 교차문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자서전 연구가 서양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양권 사람들의 인생사를 조사하는 작업은 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자서전적 기억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자면, 본 연구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첫 번째 광범위한 조사라는 점에서 자서전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자평한다.

그 외에도, 본 연구는 기존의 주체성과 관계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식에 더해 ‘자서전에 기술된 개인사’를 분석하였다는 점도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주체성과 관계성은 심리학의 초창기부터 제안된 개념이며, 연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이 되곤 했다. 본 연구는 자서전 분석이라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접근 방식을 통해 주체성과 관계성을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주체성/관계성과 적응 간의 관련성, 그리고 변인내의 개인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체성과 관계성이라는 추상적 심리학적 개념의 이론적 관계망(nomological network) 및 이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식에 새로운 수렴적 증거(convergent evidence)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의의도 있다고 판단된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진 많은 한계점은 명백하기에 본 연구의 해석에 있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일생에 있어 하나의 중요 이벤트인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 자서전을 쓰도록 요구하였다. 인생의 전환점은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서전 기술의 포인트긴 하지만, 연구에 따라서는 다른 인생의 지점, 예를 들어 인생의 최저점이나 인생의 최고점을 기술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다양한 인생의 지점에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녹아들 수 있는바, 하나의 인생사가 아닌 여러 가지 인생의 지점을 언급하도록 하게 되면 참가자의 인생의 해석에 대해서도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차적으로, 인생의 여러 지점에 대해 언급하여 그 점수들을 통합한다면 변인의 변산도를 높여 상관관계가 향상되는 기술적인 이득도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인생의 한 지점에 대해서만 주체성과 관계성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가자가 있다/없다의 단순한 구분에 의해 나뉘질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통계방식도 제한적이었다. 반면 인생의 여러 지점을 언급하게 한다면 보다 다양한 분포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자서전을 기술하는 것은 단순히 척도에 응답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요하는 작업이라, 자서전을 많이 쓰게 할수록 참가자의 응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최소한 2개 정도의 인생사를 추가로 더 요청했다면 자료가 훨씬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저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현재 추가 자료를 수집할 계획으로 있다. 이 자료들이 확보되면 개인사의 기술에 대한 보다 진일보한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패턴은 중년기 이후 특히 관계성의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50대를 최고 연령대 집단으로 분석하였으나, 만약 관계성의 효과가 중년기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중년기와 노년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집단을 포함하는 것이 연구의 시사점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 있어 주목할 만한 가능성은 노년기 자료, 특히 60대 이상의 자료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본 연구에서 발견된 연령별 차이는 횡단설계에 의해 얻은 자료에 근거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계성의 효과가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개인의 발달적 변화에 의해 야기된 것일 수도 있으나, 단순한 동시대효과에 의해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령대별 차이를 발달심리학적 이론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횡단적 설계보다는 종단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확장하자면, 동시대효과란 것은 변화가 개인의 발달이 아닌 사회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시대가 바뀌면 행동규준 역시 영향을 받게 되며, 자신의 과거에 대한 해석 양상 역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기에, 연령과 관련된 규준이나 성과 관련된 규준 모두 빠른 변화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체성 위주에서 관계성 위주로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개인의 적응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만약 이러한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이는 추후의 경험적 연구에 있어서도 다양한 주제를 던져줄 것이다. 특히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후속연구의 주제들을 언급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관점의 변화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연령에 따라 주체성에서 관계성으로 관심사가 바뀌는 것은 순전히 생물학적인 차이에 의해 기인하는가? 아니면 연령이란 하나의 지표변인일 뿐, 본질적인 이유

는 다른 심리학적 혹은 사회적 변화에서 기인하는가?

둘째, 중년기 관점 전환의 개인차는 어떠한가? 모든 사람들이 중년이 된다고 주체성에서 관계성으로 관심사가 변화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관심사의 변화가 촉진되고, 또 억제되는가?

셋째, 중년기 관계성으로의 전환은 특히 남성에게 있어 더 어려운 일인가? 여성은 기본적으로 남성에 비해 관계성에 대한 언급이 더 많다. 만약 중년기 이후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중년기 남성과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위와 같은 주제들은 모두 경험적 연구를 통해 탐색해볼 수 있으며, 중년기 및 노년기 발달에 있어서도 중요한 주제라고 판단된다. 추후 더 많은 연구자들이 자서전 연구를 통해 성인기 발달을 탐구해 볼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근영 (2013). 대학생의 자아정체성 측정의 지위적 접근과 서술적 접근: 문화권에 따른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20(6), 73-102.
- 김윤영, 박선웅, 이예은, 주민주, 박유빈 (2016). 독자성과 융화성: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두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283-308.
<https://doi.org/10.22257/kjp.2016.06.35.2.283>
- 박상준(2020).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에 기초한 교육의 혁신 방안.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0(12), 765-787.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2.765>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5(1), 95-113.
<https://doi.org/10.21193/kjspp.2011.25.1.006>
- 양재원, 양은주, 김근영 (2012). 대학생의 애착과 진로행동간의 관계에서 서술정체성 의미부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19(8), 55-76.
- 이승영, 최지영 (2021). 노인학습자의 사회적지지와 삶의 질 관계: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8(3), 245-271.
<https://doi.org/10.15284/kjhd.2021.28.3.245>

- 이용승 (2000). 강박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유겸, 임종민, 장문선 (2022). 주도성과 친화성 특성에 따른 병리적 자기애의 암묵적·명시적 자존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8(4), 589-613.
- 조봉환, 박미진, 김진희 (2014). 자서전 분석을 통한 초등학교 교사의 생애사 주제와 교사됨의 의미. *초등상담연구*, 13(4), 561-587.
- 조선희 (2008). 알코올 의존자 부인을 위한 의미요법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의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7(2), 171-181.
- 하희수, 김희백 (2019). 학생 중심의 과학 학습 공동체 이해를 위한 행위주체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9(1), 101-113.
<https://doi.org/10.14697/jkase.2019.39.1.101>
- Abele, A. E., & Wojciszke, B. (2007). Agency and communion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751-763.
<https://doi.org/10.1037/0022-3514.93.5.751>
- Abele, A. E., Hauke, N., Peters, K., Louvet, E., Szymkow, A., & Duan, Y. (2016). Facets of the fundamental content dimensions: Agency with competence and assertiveness—Communion with warmth and morality. *Frontiers in Psychology*, 7, Article 1810.
- Ackerman, S., Zuroff, D. C., & Moskowitz, D. S. (2000). Generativity in midlife and young adults: Links to agency, commun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50(1), 17-41.
<https://doi.org/10.2190/9F51-LR6T-JHRJ-2QW6>
- Adler, J. M., Turner, A. F., Brookshier, K. M., Monahan, C., Walder-Biesanz, I., Harmeling, L. H., Albaugh, M., McAdams, D. P., & Oltmanns, T. F. (2015). Variation in narrative identity is associated with trajectories of mental health over several yea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8(3), 476-496.
<https://doi.org/10.1037/a0038601>
- Adler, J. M., Waters, T. E. A., Poh, J., & Seitz, S. (2018). The nature of narrative coherence: An empirical approach.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74, 30-34.
<https://doi.org/10.1016/j.jrp.2018.01.001>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An essay on psychology and religion*. Oxford, England: Rand McNally.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https://doi.org/10.1037/0033-2909.117.3.497>
- Bem, S. L., & Lewis, S. A.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4), 634-643.
<https://doi.org/10.1037/h0077098>
- Bruch, M. A. (2002). The relevance of mitigated and unmitigated agency and communion for depression vulnerabilities and dysphoria.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4), 449-459.
<https://doi.org/10.1037/0022-0167.49.4.449>
- Buchanan, K., & Bardi, A. (2015). The roles of values, behavior, and value-behavior fit in the rel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83(3), 320-333.
<https://doi.org/10.1111/jopy.12106>
- Cacioppo, J. T., & Hawkey, L. C. (2003). Social isolation and health, with an emphasis on underlying mechanisms.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46(3 Suppl), S39-S52. <https://doi.org/10.1353/pbm.2003.0063>
- Diehl, M., Owen, S. K., & Youngblade, L. M. (2004). Agency and communion attributes in adults' spontaneous self-represent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1), 1-15.
<https://doi.org/10.1080/01650250344000226>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 Fung, H. H., Ho, Y. W., Zhang, R., Zhang, X., Noels, K. A., & Tam, K. P. (2016). Age differences in personal values: Universal or cultural specific? *Psychology and Aging*, 31(3), 274-286.
<https://doi.org/10.1037/pag0000082>
- Grossbaum, M. F., & Bates, G. W. (2002). Correlat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t midlife: The role of generativity, agency and communion, and narrative them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2), 120-127.
<https://doi.org/10.1080/01650250042000654>
- Hedman, R., Hansebo, G., Ternstedt, B.-M., Hellström, I., & Norberg, A. (2016). Expressed sense of self by people with Alzheimer's disease in a support group interpreted in terms of agency and communion.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5(4), 421-443.
<https://doi.org/10.1177/0733464814530804>
- Helgeson, V. S. (1994). Rel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Evidence and potential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412-428.
<https://doi.org/10.1037/0033-2909.116.3.412>
- Helgeson, V. S., & Palladino, D. K. (2012). Agentic and communal traits and health: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diabe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 38(4), 415-428.
<https://doi.org/10.1177/0146167211427149>
- Horwitz, A. V., & White, H. R. (1987). Gender role orientations and styles of pathology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2), 158-170.
<https://doi.org/10.2307/2137129>
- Korlat, S., Foerst, N. M., Schultes, M.-T., Schober, B., Spiel, C., & Kollmayer, M. (2022). Gender role identity and gender intensification: Agency and communion in adolescents' spontaneous self-description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1), 64-88.
<https://doi.org/10.1080/17405629.2020.1865143>
- Kuiper, N. A., & Borowicz-Sibenik, M. (2005). A good sense of humor doesn't always help: Agency and communion as modera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2), 365-377.
<https://doi.org/10.1016/j.paid.2004.04.015>
- Landis, J. R., &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33(1), 159-174.
<https://doi.org/10.2307/2529310>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 H., & McKee, B.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Ballantine.
- Locke, K. D., & Nekich, J. C. (2000). Agency and communion in naturalistic social comparis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7), 864-874.
<https://doi.org/10.1177/0146167200269011>
- Mackinnon, S. P., Sherry, S. B., & Pratt, M. W.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gency, and communion: A longitudinal mixed methods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7(4), 263-271.
<https://doi.org/10.1016/j.jrp.2013.02.007>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https://doi.org/10.1037/0033-295X.98.2.224>
- Matud, M. P., Bethencourth, J. M., Ibáñez, I., & Fortes, D. (2020). Gend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er adult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32(11),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17/S1041610220000824>
- McAdams, D. P. (1980). A thematic coding system for the intimacy mot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4(4), 413-432.
[https://doi.org/10.1016/0092-6566\(80\)90001-X](https://doi.org/10.1016/0092-6566(80)90001-X)
- McAdams, D. P. (1997). Foley center, guided autobiography. Northwestern University, Retrieved Oct. 1st., 2017 from <http://www.sesp.northwestern.edu/foley/instruments/guided/>
- McAdams, D. P. (2001). The psychology of life stori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2), 100-122.
<https://doi.org/10.1037/1089-2680.5.2.100>
- McAdams, D. P., Reynolds, J., Lewis, M., Patten, A. H., & Bowman, P. J. (2001). When bad things turn good and good things turn bad: Sequences of redemption and contamination in life narrative and their relation to psychosocial adaptation in midlife adults and in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4), 474-485.
<https://doi.org/10.1177/0146167201274008>
- McAdams, D. P., Hoffman, B. J., Mansfield, E. D., & Day, R. (1996). Themes of agency and communion in significant autobiographical scenes. *Journal of Personality*, 64(2), 339-377.
<https://doi.org/10.1111/j.1467-6494.1996.tb00514.x>
- McLean, K. C., & Pratt, M. W. (2006). Life's little (and big) lessons: Identity statuses and meaning-making in the turning point narratives of emerging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42(4), 714-722.
<https://doi.org/10.1037/0012-1649.42.4.714>
- Pals J. L. (2006). Narrative identity processing of difficult life experiences: Pathways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ositive self-transformation in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74(4), 1079-1109.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6.00403.x>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ragovi, C., Koestner, R., Di Dio, L., & Aubé, J. (1997). Agency, communion, and well-being: Extending Helgeson's (1994)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3), 593-609.
<https://doi.org/10.1037/0022-3514.73.3.593>
- Vilar, R., Liu, J. H. F., & Gouveia, V. V. (2020).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human values: A 20-nation study. *Psychology and Aging*, 35(3), 345-356.
<https://doi.org/10.1037/pag0000448>
- Walker, L. J., & Frimer, J. A. (2015).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gency and communion in moral motiv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61(3), 412-439.
<https://doi.org/10.13110/merrillpalmar1982.61.3.0412>
- Whitley, B. E. (1985). Sex-role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wo meta-analyses.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12(1-2), 207-225.
<https://doi.org/10.1007/BF00288048>